광주도시공사 사장 인선 '딜레마'

3번째 공모, 부적격 논란에 후보 지명 차일피일
지명되더라도 인사청문 장담 못해, 자괴감 확산
두 본부장 임기만료 서열 1~3위 부재 우려까지

광주시 산하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의 차기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시의회가 나란히 딜레마에 빠졌다.

시는 3차례 공모에도 불구 마땅한 적격자가 없어 고민이고, 시의회는 또 다시 낙마시킬 경우 돌아올 정무적 부담이 만만찮다.

도시공사는 임기가 만료되는 양대 본부장 공모 절차까지 밟아야 할 처지여서 자칫 '서열 1~3위 동시 부재'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 직원들의 자괴감과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

23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3차 공모 지원자 5명을 대상으로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지난 17일 후보자 두 명을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추천했다. 한 명은 박남일 전 대전도시공사 사장, 또 한 명은 건설사 부사장 출신 장모씨다.

고심 끝에 2명으로 압축됐고, 인사청문일인 8월9일까지 청문서류 준비, 신원 조회, 청문 요청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지난 18일, 늦어도 20일까지는 최종 후보자 지명이 됐어야 하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청문회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윤 시장의 장고(長顧)에는 두 후보의 적합성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박 전 사장은 재임 시절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무산과 경고 처분, 호남향우회를 둘러싼 잡음, 갑(甲)질 의전, 폭행사건 등으로 노조와 갈등을 빚어오고 적폐 공공기관장 명단에 오른 점 등이 걸림돌이고, 일부 호남 정치인들의 외압설도 끊이질 않고 있다. 병가를 내고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응모, 도덕성 논란마저 낳고 있다.

장 전 부사장도 공기업 경영이나 근무경험 없이 민간 건설업체 임원 경력이 전부여서 전문성과 적합성이 발목을 잡고 있다. '경력 미스매치'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시민단체 반발도 드세다. 고민에 빠진 윤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의회 인사 검증 눈높이는 높고 좋은 인사는 지원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며 되레 "지혜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논란을 딛고 최종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인사청문이 문제다. 전례에 비춰볼 때, 칼날 검증을 빗겨가기 힘들고, 청문회 보고서 채택 무산이나 후보자 자진 사퇴로 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경영본부장과 사업본부장 등 양대 본부장의 임기가 9월22일까지여서, 그 전에 신임 사장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고위직 3명의 부재로 조직운영에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신임 사장이 본부장 임명을 추진키로 이사회에서 의결된 상태"라고 말했다.

현직 본부장의 '셀프 추천' 논란으로 1차 공모가 무산된 바 있어 본부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하기도 쉽지 않고, 관련 업무가 다양해 본청의 특정 실·국장이 권한을 대행하기도 힘들다.

시의회 인사특위 관계자는 "다음달 8일 인사청문회를 연 뒤 14~17일 사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도시공사 사장 인선을 매듭지을 예정이었는데 후보 지명부터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70여일째 공석인 도시공사 차기 사장 선임작업이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신봉우 기자

해운대 피서객 '북적' 23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경찰, '여성폭력' 100일 집중단속…데이트폭력·몰카범죄 근절

경찰이 데이트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24일부터 10월31일까지 '여성폭력 근절 특별 추진기간'으로 지정하고 100일 동안 전국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첫 번째 과제로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100대 국정과제 중 '민생치안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일환으로 수립된 것으로 ▲젠더폭력 근절 ▲학대·실종 대응 강화 ▲청소년 보호 등이다.

경찰은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의 주요 내용 가운데 우선 데이트폭력이 갈수록 증가추세인 만큼 24일~8월31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데이트폭력 검거인원은 지난해 총 8367명으로 전년 대비 8.8%(675명)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6월 현재까지 45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189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데이트폭력은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강력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초기대응이 중요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피해자 또는 주변인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숨겨진 피해사례를 발굴하고 신속한 초동조치 및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폭력과 관련해선 다음달 31일까지 피서철 성범죄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전국의 79개 경찰관서 내 '성범죄 전담팀'이 구성되고, 스마트폰·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피서지나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몰카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피서철 이후에는 대기업 회장의 직원 성추행, 점주에 의한 알바생 상습 성추행 사건 등과 같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9월1일~10월31일)을 두고 단속한다.

청소년 성매매도 뿌리뽑기 위해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여름방학철을 맞아 다음달 25일까지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채팅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수집활동과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가출 여성청소년의 성매매 유입환경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가정폭력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가정폭력 위기가정 집중점검'도 이뤄진다.

경찰은 가정폭력 위기가정에 대한 일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화와 방문을 통해 재발여부 등 위험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심각한 재발우려 등 위기상황 발견 시 형사입건,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가정·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대표적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의를 환기하고 시기적 특성을 고려한 집중단속·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젠더폭력방지법·스토킹처벌법 등 관련법 제·개정 추진 관련 현장 법집행력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경찰조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고 설명했다.

뉴시스

이라크군, 'IS의 신부' 독일 여성 5명 체포

독일인 여성 5명이 극단이슬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해 일명 'IS의 신부'가 됐다가 이라크 군에 붙잡혀 현지 교도소에 수감돼있다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슈피겔에 따르면, 5명 중 한 명은 미성년자인 16세로 드레스덴 인근 풀스니츠 출신이다. '린다 W'란 이름으로만 알려진 이 소녀는 최근 이라크 모술에서 군인들에게 붙잡혔다.

슈피겔은 드레스덴 검찰 당국이 이라크에서 체포된 소녀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현지 주재 독일 영사관이 이 소녀를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가디언은 체포된 소녀의 이름이 린다 벤젤이라고 22일 전했다.

'린다 W'는 지난해 초 인터넷을 통해 IS 모집책들과 접촉한 이후 이슬람으로 개종하더니 같은 해 7월 초 가출해 실종됐다. 당국은 '린다 W'가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 이라크나 시리아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린다 W'가 체첸 출신의 IS 대원과 결혼했으며, 이라크 정부군을 살해하는 일을 직접 하기도 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슈피겔에 따르면, '린다 W' 이외에 4명의 독일 여성들은 바그다드 공항 지역의 한 교도소에 수감돼있다. 4명 중 2명은 모로코와 체첸계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라크에서 테러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최고 사형을 받을 수도 있다.

독일 정보 당국은 최근 수년간 이라크와 시리아로 넘어가 IS에 가담한 독일인을 약 93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약 20%는 여성이다. 미성년자는 전체 중 약 5%이며, 이중 절반이 여성으로 알려졌다.

일본 동부 아키타현 기록적 폭우…피해 속출

일본 동부 아키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강이 범람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NHK가 23일 보도했다.

일본 기상청과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22일 오전부터 23일 오전까지 아키타현 아키타 공항 지역에 347.5 ㎜, 요코테 시에 295.5 ㎜, 센보쿠 시에 270.5 ㎜, 다이센 시에 233 mm 등 9개의 관측 지점에서 24 시간 강우량이 관측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아키타 현을 남북으로 흐르는 오모노 강 상류에 홍수가 발생, 기상청과 국토교통성은 '범람 발생 정보'를 발표했다. 또한 폭우로 아키타 현 아키타 시와 다이센 시, 센보쿠 시, 요코테 시 등에서 토사 재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져 지자체가 피난 권고를 발표하는 기준이 되는 '토사 재해 경계 정보'도 발표했다.

아키타 시에 따르면 23일 오전 5시 현재 일부 지역 주택 침수가 보고됐으며, 요코테 시내 곳곳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산사태로 도로가 막혀 고립 상태에 있는 마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공군 오폭해 아프간 경찰 16명 사망

아프가니스탄에서 21일(현지시간) 미국 공군의 오폭으로 아프가니스탄 경찰 16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이번 사고는 아프가니스탄 남부 헬만드 주 게레슈크 지역에서 발생했다. 아프간 보안 병력은 이날 미 공군의 지원을 받아 이 지역에서 탈레반 소탕 작전을 펼쳤는데, 그 과정에서 아프간 경찰이 희생됐다.

헬만드 주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날 오후 아프간 보안 병력이 탈레반 세력이 있는 마을을 소탕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아프간 경찰 16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확인했다.

미 국방부도 탈레반 소탕을 위해 미 공군이 지원 작전을 펼치던 중 아프간 보안 병력을 희생됐다고 밝히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헬만드 주의 대부분은 탈레반의 세력 하에 있어, 아프간 보안 병력은 영토 탈환을 위해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미군이 아프간군을 지원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인 가운데, 미군 측은 "적대 세력이 진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 진지를 폭격했는데, 진지에 아프간 보안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헬만드 주지사인 하야툴라 하야트는 경찰들이 작전 중에 경찰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미군이 아프간 경찰을 탈레반 세력으로 오인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